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4.(화) 08:00 배포 2026. 11. 24.(화) 08:00

‘2026 이야기할머니의 날’, 세대를 잇는 가장 따뜻한 울림

- 11. 24.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 개최
- 활동을 마치는 이야기할머니 273명 격려, 교육을 수료한 703명의 새로운 활동 응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11월 24일(화), 낮 12시부터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5년 이상*의 활동을 마친 이야기할머니 273명의 졸업식과, 올해 선발되어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18기 이야기할머니 703명의 교육 수료식을 연이어 진행한다.

* 이야기할머니로 선발되면 기본 5년 활동을 마친 후 3년~5년 이내로 추가 활동 가능

감사의 뜻으로 졸업생에게 공로상과 감사패 수여, 이야기할머니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야기극 공연, 어린이 합창 등으로 축하

먼저, 문체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5년여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헌신하신 이야기할머니 졸업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공로상은 박숙희(5기), 손재인(10기), 송형숙(13기), 신춘선(13기) 이야기할머니에게, 감사패는 졸업생을 대표해 이동임(5기), 이영숙(10기), 김점경(13기) 이야기할머니에게 수여한다.

이후, 18기 신규 이야기할머니들의 교육 수료 과정을 영상으로 상영하고 수료생 703명을 대표해 박이화 이야기할머니에게 수료증을 전달한다. 1년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친 이야기할머니들은 2027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리 아이들과 전통이야기를 통해 함께 교감하며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축하 공연도 이어진다. 이야기할머니들이 직접 출연하는 융·복합 이야기극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의 '요건 내 떡', 청주 자연유치원 어린이들의 합창, 전통나눔 할아버지들의 공연으로 행사의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야기할머니 3천여 명, 전국 8,300여 개 유아 교육 기관·초등학교에서 전통의 나눔 가치 실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전국 유아 교육 기관에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해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26년 기준 이야기할머니 3,000여 명이 8,300여 개 유아 교육 기관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학교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 약 50만 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야기할머니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암기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목소리와 동작을 연구하며 흘리신 땀방울이 오늘날의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며,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6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 포스터
따로 붙임 '이야기할머니' 활동사진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책임자	과장	조재일 (044-203-2550)
		담당자	사무관	김영아 (044-203-25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6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 포스터

